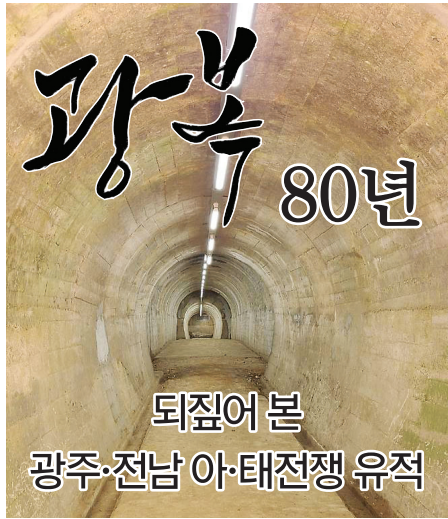


‘아태 전쟁의 중심’ 여수, 일제 ‘요새사령부’ 전략



〈7〉 남해안 요새화 핵심 축 여수

한 려수도 물길의 관문이자 남해안 연근해 수송의 중심지였던 여수는 일제강점기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요새’이자 전쟁의 중심지로 전략한 아픔을 갖고 있다.

목포가 호남 서부지역의 대외 진출지였다면, 여수는 경남의 서부지역과 연결돼 있어 전남 동부지역의 대외 진출지 역할을 했다. 더욱이 해안선이 깊고, 돌산도와 남해도가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등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일본은 일찍부터 여수를 남해안 요새화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여수는 아·태전쟁에 앞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확산 당시부터 군수 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병참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여수항은 부산, 목포, 군산항과 함께 본토·대륙을 잇는 연결축으로 기능할 수 있었고, 철도도 연결돼 있어 광주·나주 등 내륙에서 수탈된 쌀이나 면화가 집결되는 곳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일찍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1년부터 여수를 호남 유일의 요새사령부 설치 부지로 낙점했다.

1941년 7월 18일, 일본 마산중포병연대 책임 하에 현 여주시 동문동 여수중학교 부지에 여수임시요새사령부가 설립됐다. 일본군 전쟁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중일전쟁이 신속하게 끝나지 않고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전쟁이 확대되자 세운 임시 요새였다.

사령부 설치 직후부터는 여수 곳곳에 일본군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여수요새사령부 산하에 여수중포병연대, 방공대, 특설 경비대, 고사포부대, 공병대, 병원 등 다양한 부대가 속속 배치됐다. 미군의 상륙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막을 펼친 것으로, 여수는 경남 진해의 서쪽 연안항로를 방어하고 대륙 침공 작전의 병참 전초기지로 기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여수 앞바다의 돌산도에는 경남 남해와 서로 마주보는 지점들에 포병 진지를 배치하기도 했다.

1942년 4월 28일, 여수요새사령부 본부가 진해만요새에서 여수로 공식 이전되자 여수는 본격적으로 남해안 군사 거점으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부터는 신월리 일대에 항공기지(해군 202부대)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수상비행장 형태의 활주로, 격납고, 연료고, 지휘소, 철도시설 등 복합 군수기지가 계획됐다.

현재도 여수 남단 신월동 구봉산 일대에는 일본군이 구축한 항공기지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수상비행기 활주대부터 지하 연료고, 철도터널까지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구축됐으며 현재도 일부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임시’ 편제와 달리, 여수기지가 대륙 침공과 본토 방어를 염두에 둔 실질적 상시 전략기지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다.

여수항공기지에는 독특하게 공장 구역이 포함돼 있었는데, 군수품 공장으로 무기를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목적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항공기지에서도 미평역까지 연결된 철도도 군수품 생산 및 수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여주시 주삼동 일대에는 해군사령부로 추정되는 지하병거 및 전신소 병거를 구축했으며, 일종의 전시 지휘소로서 환기구, 배수구, 발전기실, 통신용 굴뚝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만들었다.

일본이 여수를 군사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강제이주, 강제 노동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신월동에서 항공기지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정든 땅을 떠나야 했고, 여수뿐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 곳곳의 지역민들은 ‘근로보국대’라는 명목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일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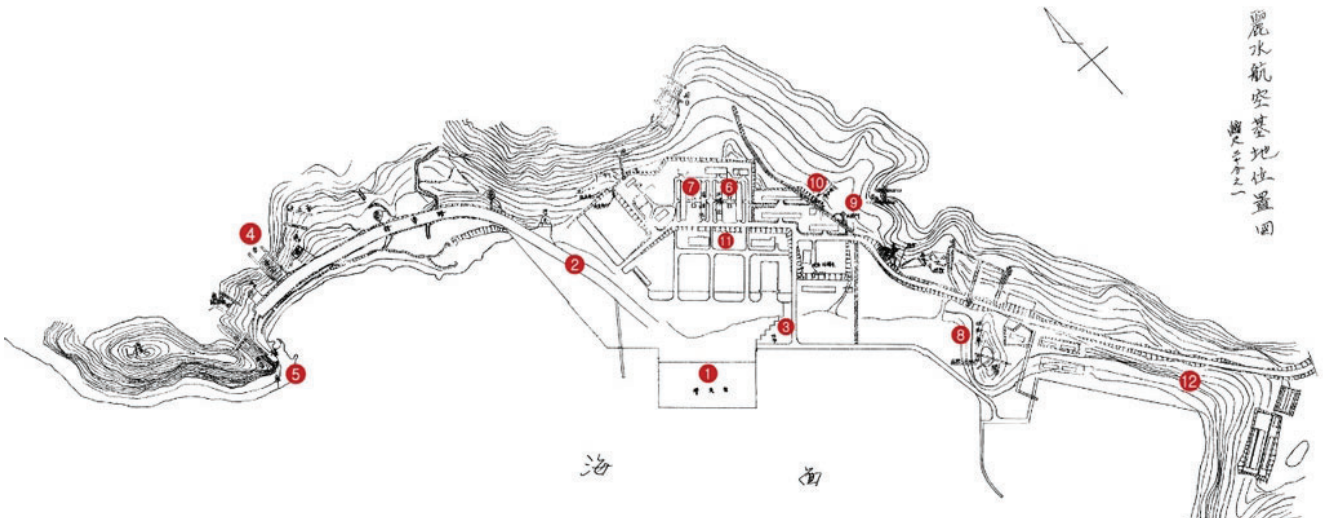
1942년 4월 지어진 여수요새사령부의 터. 현재는 여수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해안선 깊고 돌산도·남해도 ‘천연 방파제’ 역할…천혜의 지리적 조건

1942년 4월 여수요새사령부 본부 공식 이전…남해안 군사 거점 전환

여수중포병연대·방공대·특설경비대·고사포부대· 공병대·병원 등 배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항공기지 지도. <주철희 박사 제공>

중학생은 물론 국민학생(초등학교)까지도 예외 없이 동원해 2개월씩 교대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학생들은 일본의 부족한 항공유를 충당하기 위해 소나무의 죽은 웅이에 모이는 기름 ‘송탄유’를 채취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산야를 헤매야 했다. 강제 동원에 반대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학생들도 있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인을 동원해 포대 및 동굴 진지 공사를 주야로 진행했다. 일부 동굴 진지 시공에는 금광 노무자들이 투입됐고, 작업은 24시간 체제로 이뤄졌다.

미평역과 신월리 간 군수 수송용 철도(신월리선) 공사도 병행됐다. 철도공사에는 교도소 수형자까지 동원됐고, ‘넘나리 철도굴’로 알려진 철도 터널 등 일부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는 “여수에 설치된 요새사령부는 일본의 대륙 침략과 태평양전쟁 확대 속에서 남해안 전체를 병참 및 방어 거점으로 만든 상징적 사례다”며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사령부가 설치된 도시며, 이는 여수가 전시 병참망과 군수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편입됐다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현존하는 일본군 해상 활주로 ‘국내 유일’

신월동 가막만 해상 콘크리트 블럭 활주로 인근 격납고 5기 중 4기 남아
지하 연료고·철도터널 등 원형 유지
자산공원·돌산 향일암엔 포대 진지
여천초 뒷산 해군 사령부 지하병거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군사기지로 이용됐던 여수에는 아직도 침략전쟁의 흔적이 선연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구축한 군사기지 유적은 신월동, 주삼동, 자산공원, 돌산 일대 등에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채 남아있다. 이들 유적에는 일본이 여수를 침략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으면서 조선인을 대규모로 강제 동원했다는 아픈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여주시 신월동 일대에는 아·태전쟁 초기 지어진 항공기지 흔적이 남아 있다.

신월동 가막만 해상에선 국내에 남은 유일한 일본군의 수상비행기 해상 활주도가 남아 있다.

활주로는 가로 210m, 세로 100m 규모로 바둑판 모양 콘크리트 블럭(140cm×95cm×145cm)으로 조성돼 있다. 건설 당시에는 항공기지의 유도 도로(유도로)와 연결돼 있었으나, 신월동과 웅전을 잇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매립됐다.

이 활주로는 해상 활주로로, 일제강점기 침략 전쟁의 흔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록한 비행기를 격납고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 ‘유도로’는 길이 900m 이상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현재는 한화 여수공장 내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에는 비행기를 사람이나 말이 끌어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도로 끝에는 콘크리트 격납고 5기가 배치됐으며, 이 중



여주시 신월동에 있는 여수수상비행장 활주로 전경.

4기가 남아있다. 3곳은 입구가 막힌 채 창고로 사용 중이며 1곳은 흙으로 덮여있는 상태다.

신월동 구봉산 산기슭, 현재의 한화 여수공장 내에는 연료고로 활용됐던 지하동굴 5기도 남아 있다. 이 중 4기는 서로 연결돼 있는 구조이며 1개는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내부 가장 큰 동굴은 높이 약 4.1m, 폭 3.4m, 길이 7.2m 규모로, 바닥에 배수구가 설치돼 있고 천장에는 쇠고리가 남아 있다. 동굴 벽면의 일정 간격으로 남은 목침 흔적은 군수 자재를 다루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해 추진된 신월리선 철도공사의 흔적도 확인된다. 신월동 동성자동차학원 뒤편부터 넘나리마을까지 약 230m 길이의 ‘넘나리 철도굴’은 입구 석축과 콘크리트 구조가 온전히 보존돼 있으며, 국동남6길 일대 주택 아래에는 당시 중간 정차역 플랫폼 연석이 일부 남아 있기도 하다.

자산공원과 돌산 일대 포대진지는 일제의 침략 흔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유적이다.

자산공원 고사포진지는 콘크리트 포좌 형태로 남해와 여수 시내를 동시에 조준할 수 있도록 배치돼 있다. 돌산 향일암, 계동마을, 금북리 향대마을 일대에는 동굴 진지와 포대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일부는 현재 군 초소로 활용 중이다.

여천초등학교 뒷산 능선에는 해군 지하사령부로 추정되는 타원형 지하병거가 있다. 폭 2.5m, 높이 3m, 길이 약 60m 규모로, 내부에는 환기구, 화장실용 하수구, 발전기 설치 자리가 남아 있어 후방 지휘소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여수농업기술센터 입구에는 통신용 굴뚝 구조물과 연결된 전신소 병거도 확인된다.

또한 주삼동 논 한가운데에 미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1기가 남아 있다. 일부 주민은 이곳을 송수관 또는 야외 목욕시설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유적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구축돼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존과 관리 대책은 미흡해 대부분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